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아이디어 봇물

# “비과세 상품·분산 투자가 대안”

## 정기 예·적금 월 지급식 상품 활용 유리

올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시중은행도 부유층의 자산 운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분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며 부유층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보험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10억원 이상 부유층이 자산운용 조언을 요청하는 사례가 평소의 배에 달했다. 이자·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금융 광주은행 PB센터 차장은 “절세 방법을 묻는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넘는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예상했던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고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그동안 예상했던 3000만~2500만원보다 더 낮아졌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5억 원만 돼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에 달한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명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유층은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 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보험사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금융소득 세제 강화 시행령이나 세법 개

정이 확정되면 해당 고객에 전화 등을 통해 대처 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장기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등이다.

또 중도에 매매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나 브라질 국채도 올해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예·적금은 만기일에 따라 분산예치하고 월 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12월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분류하므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시기를 분산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연합뉴스

## 이·미용 최종지불요금 게시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게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영업장 신고 면적 66㎡ 이상, 전체 4228개소 가운데 467개소(이용 75, 미용 392)가 해당된다. 이음업소는 3개(면도, 이발, 염색 등)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컷트, 펌, 드라이, 염색 등)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마음은 벌써 '봄'

올 봄에는 오렌지, 핑크 같은 화사한 색상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3일 (주)광주신세계 2층 화장품 매장서 여성고객이 올 봄 트렌드 컬러인 핑크 색상 화장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 부도 자영업자 절반이 50대

올해는 원화강세가 지속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달러당 1050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에서는 1000원선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금통계를 타고 있는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평균 83~90엔 정도의 전망치가 나왔지만, 상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3일 수출 업종에 약제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고 내수 업종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부도가 난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사이에 창업이 인기지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불우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3일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정지 내역을 보면 2012년 부도를 맞은 자영업자는 총 33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만 50~59세(1953~1962년생)의

자영업자는 159명으로 전체의 47.0%다. 60대 이상(26.6%)이나 40대(22.2%)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50대의 상황은 악화했다. 2011년 부도 자영업자 391명 중 50대(1952~1961년생)는 172명으로 44.0%였다. 1년 만에 3%포인트 늘었다. 이는 5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와 동시에 창업에 뛰어들며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55년생은 2010년부터 정년(55세)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총 175만6000명에 달한다. 159만5000명(2009년)→160만8000명(2010년)→169만7000명(2011년)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 백화점·대형마트 ‘힘겨운 겨울’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82...3분기 연속 하락

백화점·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소매유통업계는 올해 1분기에도 힘겨울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9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D)'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82'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98)보다 16포인트 내린 것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RBSI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체별 전망치를 보면 전자상거래(110)만이 유일하게 전 분기(80)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슈퍼마켓(91), 백화점(86), 대형할인점(78), 편의점(57) 등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상거래(110)는 경기침체 장기화 탓인 소비자들의 알뜰소비 성향과 백화점·대형할인점·아울렛 등 다양한 업체들의 온라인 쇼핑 채널 확대, 모바일 쇼핑 확산, 한파와 폭설 등의

요인으로 1분기에는 이전 분기보다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마켓(91)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와 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며, 백화점(86)과 대형할인점(78)의 경우 설 명절 등 계절적 특수에도 설 연휴가 예년보다 짧고 온라인몰 활성화 등으로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57)은 근거리, 소량 소비패턴과 적극적인 매장 확장에도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유동인구 감소,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제도 등을 우려해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최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현대와 세계 빅5로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6>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⑫

## 광주권 대표기업 자리매김...62만대 증산 눈앞

▲YS, 삼성 승용차 대선 공약 기아자동차의 현대 낙찰은 삼성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자동차산업 진출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이기도 했던 삼성은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1992년 7월5일 과잉생산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승용차 생산을 허용하는 무리수를 썼다.

이로 말미암아 기아차의 주력제품인 승용차 생산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노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출 허용을 내걸었다.

▲삼성 드디어 SM5 생산 그러나 대선 승리 후 기아·현대·대우 등 국내 자동차업체 3사가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승용차도 승용차 생산을 고려하는 판국이어서 또 다시 신규 자동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논리상 불가능했다. 업계의 반발 못지 않은 국민감정 약화와 공약 실현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되자 삼성은 부산지역의 여론을 자극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하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 결국 1994년 12월2일 정부는 삼성 승용차 시장 진출 허용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가던 삼성은 1998년 3월 드디어 연산 3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완공하고 SM5의 생산을 개시하게 됐다.

▲기아차 인수실패, SM5는 르노에 매각 삼성이 무리한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가 현대자동차(연산 193만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공장으로 SM5의 생산을 단행한 것은 기아차의 인수를 전제로 한 전략이었다. 사실 단독으로는 완성차 생산규

모의 확보이나 연구인력 확보, 기타 부대 시설 등 설비투자가 버거운 삼성으로서는 기아차 인수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과 유리한 연부상환 조건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전략이나 자동차산업 진출의 오랜 숙원이 현대의 기아차 낙찰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삼성 SM5는 1999년 6월30일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채 4조3000억원을 안은 채 법정관리업체로 지정됐으며 2000년 9월 프랑스의 르노자동차에 매각됐다.

1961년 8월 첫발을 내딛은 아시아자동차는 동국제강과 기아산업을 거쳐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이어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에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더불어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광주권 대표기업으로, 62만대의 생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위중 (연문인)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거라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Canon

EOS 60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